

논설위원 칼럼



이 병 두
종교평화연구원장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종단의 숨을 이어가기조차 힘들던 1960년대 초반에 이런 과제를 내세운 데 대해서는 당시 종단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종단 기관지 ‘불교신문’(당시 제호 ‘대한불교’) 1964년 1월1일자에 실린 ‘64년도 역경, 그 주변’이라는 글에서 ‘삼대 사업에 줄곧 부도를 내고 있다’며 맹공하였다. “전국 방방곡곡의 절간에서는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사직(祠直)에 뿌릴 예산은 마련되었지만, 부처님의 교법을 쉬운 말로 소개하는 데에 쓰일 예산은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다. 하여, 역경을 비롯한 삼대사업은 명실공히 줄곧 부도만 나버린 것이다. … 이제까지는 핑계로 통했다. 제대로 손대지 못한 일이면 무엇이냐 ‘종단정화 때문에’라는 아련한 핑계로. 그러나 그 아련한 핑계도

한국불교, 소송 비용만 아껴도

이제는 시효가 지났다. 부디 올해부터는 삼대사업의 변질한 그 대의명분에도 이 이상 부도가 나지 않기를 이만치서 조용히 빌어야겠다.”(당시 불교신문에는 이 글 말고도 ‘이 혼탁과 부끄러움’ ‘세간법에 의탁하지 않는 자중을’과 ‘침묵은 범죄다-봉은사가 팔린다’ 등 스님의 애정 어린 비판의 글 여러 편이 실렸다.) 법정 스님의 이 글이 나온 지 60년이 다 되어간다. 그런데 스님의 지적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60년 전에 비하면 종단의 예산과 종무원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일반 사회의 기준에 따라 종무행정 체계를 갖추어 결고습만으로는 성장과 안정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긴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 종단 운영 예산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외부 재단이나 시주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종무원 급여를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성장과 안정을 이룩하게 된 것도 기적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박수만 쳐줄 수는 없는 일이다.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한국불교, 범위를 좁혀서 조계종은 일반 사회의 소송에 얽혀서 쓰인 막대한 돈을 이른바 ‘3대 사업’에 투입했다면 지금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것이다. 종단 내부 문제로 갈등하고 분쟁을 해결하느라 흔들리지 않고, 불교 본래

의 존재 이유인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귀일심원 요익중생(歸一心源饒益衆生)’에 매진하면서 사회대중의 신뢰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법정 스님이 ‘종단정화라는 아련한 핑계의 시효가 다했다’고 한지 60년이 다 되어가는 데에도 절을 차지하는 문제로 시작된 소송이 여전히 진행되는 곳이 있고, 종단과 각 교구본사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내부에서 조정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중도’를 자처하는 이들이 걸핏하면 검찰·경찰에 고소·고발장을 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같은 은사스님의 상좌들 사이에서도 형사 고발과 민사소송을 밀어붙이면서 아무 부끄러움도 없다. 이런 식으로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고, 불교계의 어두운 사건들이 언론에 등장하여 위상을 실추시킬 뿐 아니라 소송의 양쪽 당사자들이 승소하겠다면 변호사들에게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스님들이 입적한 뒤 미처 종단 앞으로 등가이전을 해놓지 못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금 등을 둘러싸고 고인의 가족 및 친인척들과 민사소송을 이어가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도 엄청나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용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가. 이제는 ‘변호사들에게 들어가는 막대한 소송비용’에 삼보정재를 낭비하는 일만은 멈추자.

beneditto@hanmail.net

법보 시론



허 남 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가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루 종일 관련 뉴스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관계당국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국민들의 일상적인 사회활동도 크게 위축되었다. 약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당연히 소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국내외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았고 부품공장을 중국에 둔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부품공급이 여의치 않아 생산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런데 급성 호흡기증후군인 사스와 메르스, 에볼라 사태에서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야생동물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해당지역의 식습관이 도마에 올랐다. 바이러스의 1, 2차 숙주로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세계 최초로 메르스 바이러스를 발견한 이집트의 알리 무함마드 자키 교수도 최근 국내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점을 다시 지적한 바 있다.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으면 신종 코로

신종 바이러스의 역습

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바이러스의 공격은 계속 될 것이다… 야생동물을 먹는 식습관이 남아있는 중국과 남아프리카에서 우한 폐렴과 에볼라가 발병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야생박쥐가 발병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자 박쥐를 복(福)을 불러오는 행운의 동물로 여기고 찌거나 삶아서 먹는 중국인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벌써부터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비하 행위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필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인종주의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인종주의는 실존윤리학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종차별주의의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신종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비난받고 있는 무분별한 식습관은 인종적 편견 이전에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들의 선택은 그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신종 바이러스의 역습은, 불교적으로 말해 물질됨없는 연기의 그물망 속에서 인간들이 짓는 업과 그에 따른 너무나 당연한 과보라는, 섬뜩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기 때문에 걸리지 않아도 될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곱씹어

볼수록 두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그저 단순소박하다. 과학자들의 연구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기제가 규명되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어리석은 행동은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바이러스의 숙주 역할을 하는 야생박쥐나 사향고양이를 더 이상 먹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곧 그들의 도덕적 의무다. 중국인들의 고유한 식습관을 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비롯되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우리 한국인들도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고기반찬을 과감하게 줄일 때가 되었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자는 제안을 드린다. 여기서 굳이 살생의 업보까지 거론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다른 존재의 하나뿐인 생명을 빼앗은 대가로 내 몸이 아프다면 고기를 먹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와 같은 육식문화가 하루빨리 중단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수공통인수(人獸共通)의 변종 바이러스가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역수출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연기와 업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위대한 상식’에 다름 아니다. 상식의 힘은 보편성에서 나온다. 신종 바이러스의 역습은 고맙게도 연기와 업보의 보편적 가치를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hnk@dongguk.edu

사 설

아홉 스님 위례천막결사, 바르게 회향하는 길

2019년 11월11일은 위례천막결사를 위해 상월선원의 철문이 굳게 닫힌 날이다. 그로부터 90일 만인 2월7일 법당 문이 다시 열렸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결사 대중 아홉 분을 맞이하면서 내린 첫 당부는 “이제 문을 활짝 열어 중생구제에 매진하자”는 것이었다. 결사 대중들은 삼천대천 세계를 향해 당신들의 결사 회향에 대한 일체 인연공덕에 감사와 회향의 의미를 담아 삼배를 올렸다. 종정 진제 스님의 당부와도 같이 결사 대중들의 삼배에는 한국불교의 쇄신과 함께 중생구제의 원력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옛 선지식들이 그러했듯이 결사는 한국불교의 위기 상황에서 항상 희망의 빛을 발했다. 보조국사 지눌의 정혜결사는 권력과 탐욕에 찌든 당시의 승가에 서릿발 같은 청정계율의 주비가 되었고 청담, 성철, 자운 스님 등이 일제강점기 직후 결행했던 봉암사 결사는 일제불교의 잔재로 어지러웠던 당시의 승가에 수행자로서의 위외와 계향청정의 바른 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됐다. 위례천막결사의 의미 역시 역사에 각인된 선대 결사들의 가르침과 맥락을 함께 한다.

오직 원력과 수행으로써 한국불교의 앞날에 희망의 싹을 틔우겠다는 발원이 결사 대중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었기 때문이다. 역대 선지식들이 산중 사찰에서 결사를 진행한 것과는 달리 도심의 천막법당에서 결사를 진행했으나 결사 대중들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했고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청규로써, 그것도 도량이 아닌 풍찬노숙(風餐露宿)이란 극한의 상황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천막법당에 몸을 맡긴 채 열 결사의 길을 그대로 따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어 보인다. 9명의 청량수와 같은 위례천막결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일대사는 이제 1000만 불자들의 몫이 됐다. 혼탁해진 세상을 맑히고자, 고통 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결사 대중들의 정신은 사부대중이 일상에서 이 뜻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일상에서 계행을 지켜 갈 때 올곧게 회향할 수 있다. 오직 그것만이 위례천막결사에 동참했던 결사대중 9명 스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길이다. 종정 진제 스님이 결사 대중 9명에게 일성으로 던진 “이제 중생구제에 매진하자”는 당부를 되새기고 실천해야 할 때다.

동국대일산병원, 3차 의료기관 성장동력 되길

1994년 12월 당시 동국학원 이사장이었던 녹원 스님은 정부로부터 동국대 병원 설립을 승인받으면서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구현해 내는 의술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의료 시혜를 제공하고 우수한 의료인재를 양성하고 국민보건향상과 자비정신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불교병원 설립에 담긴 목적이었다. 동국대 의료원이 자비의 의술을 선포하고 실천해 온지 26년. 의학 동국의 상징과도 같은 병원인 동국대 일산병원이 개원 15주년을 맞아 1000개 병상을 갖춘 일산 최대 규모의 3차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공표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사장 법산 스님은 2월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병원 병동 증축 등 불교의료 인프라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1000개 병상으로서의 증축은 3차 의료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눈길을 끌었다. 주지하다시피 의료 부문에서 만큼은 불교에 비해 가톨릭과 개신교계 대학들이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월등히 앞서 있는 상황이

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일산병원의 발전계획은 남북을 잇는 초고속 철도인 GTX, 그리고 일산-운정 신도시와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서 불교 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성장을 선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어 보인다. 이것은 의료부문에서 우리 불교도 다른 종교계의 병원들에 견줄만한 경쟁력을 공인받게 됐음을 의미한다. 의료병원부문은 각 대학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3차 의료기관이 없는 대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지 오래다. 현재 동국대 의료원은 일산과 경주, 분당 등 병원에서 1200병상을 운영 중이고, 일산병원의 1000병상 확대와 함께 2030년까지 3000병상 규모로의 확대도 성장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을 통해 질적 성장을 완성한다면 일산병원을 포함한 동국대 의료원은 한국의 의료계를 대표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시에 대학의 평가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효과까지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88년 5월 16일 창간		● 법보신문	THE BEOPBO SHINMUN
발행인 김혁규 광 고 노 훈	편집인 이재형 인 쇄 임체정	구독신청 : 02-725-7010	광고접수 : 02-725-7013
(우)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A동 1501호 (트메이에르 종로타운) 구 독 료 : 월 5천원 / 1년 6만원 법보시 : 1구좌 2부 월 1천원		독자 여러분의 뉴스제보를 기다립니다. 홈페이지 : www.beopbo.com 메일 : webmaster@beopbo.com FAX : 02-725-7017 제보 문의 : 02-725-701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서울 다07229호	

투투컴퓨터

전문가용 종합 역학프로그램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 홈페이지 제작, 관리 / 종합사찰 서비스
문의전화:02)585-1141 **www.twotwocom.co.kr**

금강장사2.0 new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죽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듬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 등 쉽고 다양한 기능
SMS(문자)서비스 기능지원(충전,조회 바로가음)
200여 종류의 출력양식지원
나이별 편지발송 기능을 내장한 막강한 생일관리 기능지원
국내의 모든 우편물 양식을 지원하는 우편물 발송기능지원
신도의 효율적 관리의 핵심, 행사관리(인등,연등)지원



홈페이지
사찰홈페이지전문 제작,관리
02)585-1141

사찰홈페이지는 사찰서비스전문기업에서!



사주
프로그램
국내최초 전문역학프로그램
02)585-1141

최고의 보급률! 1300만가지 사주데이터!



투투컴퓨터 검색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 를 쳐보세요! 새롭게 변한 『금강장사2.0』 을 보실 수 있습니다.